

歐洲思想의 由來 (二)

저자 미상

第一章 끼리사 思想 (續)

(一) 自然生活主義

此와 如한 意味에 在하여 끼리사[그리스] 思想의 第一 特徵은 吾人은 自然生活主義이라는 言語로써 解釋하노니, 自然生活主義이라는 가령 佛教이나 基督教과 如히 自然生活을 疎外함과 相反하여 自然 그대로의 生活을 享樂하고 또 尊重함을 意味함이라. 끼리사 思想의 此特徵을 理解하기 爲하여는 吾人은 먼저 끼리사 民族은 歷史的으로 觀察하여 또 가장 少壯한 民族임을 記憶하지 안이 하면 안이 될지라. 가장 少壯한 民族인 故로 彼等은 元氣가 充滿하여 人生의 罪惡이라든지 人生의 闇黑이라든지 하는 것은 일즉 深히 意識하지 안이한 極히 快活한 民族이라. 或은 民族의 性質 나름으로 少壯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快活하다고 酌定한 것은 안인즉, 快活, 樂大的, 어디까지라도 自然의 人類生活을 享樂하고 尊重하든 끼리사 民族은 그와 如한 傾向이 最初로부터 彼等の 特質이었든지도 知치 못하겠도다. 無論 끼리사 民族도 印度民族이나 헤부라이 民族과 同히 顯著히 宗教的이었으나, 끼리사의 神代記이나 宗教는 基督教이나 佛教과 如히 厭世的, 悲觀的, 遁世的인 안이오, 오히려 反對로 어디까지라도 自然的, 樂天的, 現實的이었을 줄로 想像되나니, 現에 끼리사 古代의 諸神은 人生과 全異한 것이 아니요, 神일지라도 喜怒도 하고 哀樂도 하며 境遇들 隨하여야는 奸策을 用하여 他의 諸神을 陷害하는 것도 例事로 行하였스니, 此로 由하여 觀하면 神이라는 것은 畢竟 算貴하고 美麗한 人物이니 人神의 間에 絶對한 區別이 無한 줄로까지 想像되는 것이라. 何事이든지 現實을 貴히 하고 自然을 好하든 끼리사人의 處地로부터는 神이나 宗教까지도 現實의이나 自然的으로 外에는 싱각하지 못한 것이니라.

끼리사人이 如何히 自然의 生活을 尊重히 하고 享樂한지는 그 오림비아

[올림피아]의 祭禮를 爲始하여 人類生活의 善美를 祝願하는 祭典을 彼等의 가장 重要한 年中行事의 一件을 삼은 事實로도 明白하니, 無數한 祭典 그것이 人類生活의 幸福을 祈禱한 것일 뿐 아니라, 祭典에 隨한 各種의 儀式, 會合, 競技, 遊戲 等은 다 人類의 自然生活을 肯定하고 祝福하는 것에 不外 하얏으며, 더욱 끼리사人이 如何히 自然을 尊重히 하얏는지는 精神 方面의 發達과 併하여 肉體의 美를 가장 尊重히 한 것으로부터 見하여도 明白한지라. 諸般 事物에 在하여 快活한 끼리사人은 靈肉은 그대로 一體이라. 今日과 如히 其間에 分離와 矛盾을 感하지 아니하고 從하여 感性的 歡樂은 彼等に 在하여 何等 淺陋한 것이나 不德한 것이 안이오, 도리어 이것을 享樂함이 本然의 生活로 싱각하니라. 勿論 소크라테스는 節制主義의 元祖이라. 소크라테스學派에는 有名한 禁慾主義者가 續出하고 또 플라톤[플라톤]과 如한 이도 明白히 一種의 悲觀的 傾向을 示함은 否認하지 못할지라. 그러나 此等은 끼리사의 全盛時代에 起한 現象이 안이오, 차라리 끼리사 末期에 屬한 現象이라. 西紀前 約 第五世紀에 著名한 政治家 베리크테스[페리클레스] 時代—普通 所謂 끼리사의 全盛時代—까지의 傾向에 就하여 言하면, 끼리사 生活은 어디까지든지 放任이오 華麗한 樂天的 生活이니, 節制主義는 單히 過度한 耽溺을 戒飭하는 敎訓이오 決코 現實生活 否定의 意味를 有한 것이 아니라. 끼리사人이 如何히 自然生活을 尊重하얏는지는 彼等의 人生觀이 大體에 在하여 如何히 現實的이며 또 如何히 樂天的임에 依하여 明白하니, 올림피아[올림피아]의 神殿은 文明史的으로 觀察하여 確實히 끼리사 文化의 結晶이라. 各神이 直接으로 現世를 支配하여 人生 全體 上에는 善은 점々 榮하고 惡은 점々 衰하는 正義가 行한다는 것이 끼리사人의 深切한 確信이니, 卽 現世는 어디까지든지 各神에게 支配되는 美하고 貴한 正義의 王國으로 싱각하고, 未來이라든지 罪惡이라든지 하는 것은 끼리사人에게는 가장 無用한 思想이니, 現實의 美生活을 耽樂하는 것이 彼等の 目的이니라.

故로 此點으로부터 觀察하면 其後 플라톤의 厭世觀이며 소크라테스學派中の 禁慾主義와 如한 것은 끼리사 固有의 自然生活主義가 時勢에 激發한 反動運動이라고 解釋되니, 卽 西紀 約 第四世紀 以後로 끼리사의 國運이 次第로 衰退에 傾하여 一般 끼리사 民族의 生活은 甚히 萎靡不振하여 頽廢의 傾向을 示하니, 此와 如히 하여 傳來의 樂天的 實現主義는 本來 强熱하든 것임으로 否運인 時代 傾向과 衝突하얏스나, 時代 傾向이 漸々 暗黑的인 故로 마침내 反對로 悲觀 厭世에 轉하니라.